

# 김순호 구례군수 “새로운 비전 실행 ‘도약의 해’ 만들 것”



김순호 구례군수가 제314회 구례군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 내년 5대 군정 운영 방향 발표...본예산 3천463억 편성 지속가능 경제·친환경 농업·1천만 관광시대 기반 구축

김순호 구례군수가 경제 활성화, 천만 관광객 유치, 친환경 농업 등 5대 군정 운영 방향을 통해 구례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3일 구례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제314회 구례군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함께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내년을 ‘구례의 새로운 비전을 실행하고 군민과 함께 도약을 준비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16억 원 줄어든 3천463억원 규모로 편성돼

회에 제출됐다. 김 군수는 시정연설에서 2024년 주요 성과를 되짚으며, 군민과 의회의 협력에 감사사를 표했다.

주요 성과로는 ▲1조4천억원 규모 양수발전소 유치 ▲551억원 규모 지역활력타운 공모 선정 ▲대한민국 최초 휴살리기 박람회 개최 ▲생활인구 전국 1위 달성(등록 인구 18.4배)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지리산정원 전남지방정원 등록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등이 포함됐다.

5대 군정 운영 방향으로는 ▲지속가

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1천만 시대 기반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친환경 농업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 ▲함께 누리는 복지와 지역사회 성장을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수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청년 주택과 근로자 기숙사 건립, 농촌유학타운 추가 조성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옛 읍사무소 일대를 청년스타어와 역사기록관으로 재구성해 지역 경제와 활력을 도모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섬진강 통합관광벨트와 오산 케이블카 사업을 통해 1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섬진강 중심 관광 시대를 열고, 산수유 스카이워크와 지리산 호수공원 체험 시설 등 새로

운 명소 개발로 관광 르네상스를 실현할 방침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구례읍 내 산재한 공공기관을 군정 주변으로 집적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옛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는 주차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읍·면 지역에는 기초생활거점 시설을 조성하고 계산·선월지구 재해위험개선 사업과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친환경 농업 선도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휴 살리기 사업을 확대하고, 구례 밀 산업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례 밀 브랜드화와 스마트 농업기술 도입, 수박 수직재배 등 특화 작물 육성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복지와 지역사회 성장’을 위해 모든 경로당에 입식 테이블과 의자를 보급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출생기 본수당 지급과 농식품 바우처 지원으로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기반으로 K-푸드 특성화 학교를 조성해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

김순호 군수는 “2025년은 군민과의 약속을 완성하고 구례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기회를 현실로 바꾸는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구례의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 담양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사회활동 도움도...13일까지 읍·면사무소 방문·온라인 신청

담양군은 3월 “오는 13일까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유형별로 ▲노인공익활동사업 1천470명 ▲노인역량활용사업 140명 ▲공동체사업단 40명 등 총 1천650명이 대상이다.

담양군은 저소득 노인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건강개선과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어르신 삶의 만족도 향상과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읍·면사무소 및

수행기관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노인일자리 여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발되면 내년 1월부터 안전·직무교육 등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2025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총 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담양군, 담양시니어클럽, 담양군 향촌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담양군지회 등 4곳의 수행기관에서 총 22개 사업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 기자

## 여수 ‘섬 법정구역 경계’ 전산 자료 정비

담당공무원 직접 수행...예산 1억4천만원 절감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섬 지역 법정구역 경계 전산 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정비해 예산을 크게 절감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 등 섬 지역 법정구역(시군구, 읍면, 동리) 경계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불일치해 도면의 필지별 경계 정보와 위성영상 및 법정구역 경계를 활용해 오류자료를 정비했다.

상반기에는 남면, 화정면, 삼산면 지역 1천440장을 정비했으며, 하반기에는 돌산읍 및 동 지역 해안가 2천435장에 대한 정비를 추진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지자체 최초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1억4천만원 상당의 용역 수수료 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전남도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집해 민간·행정 분야의 기초 정보로 활용되기 때문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섬박람회의 성공 개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 순천만서 희귀 철새 ‘흰기러기’ 첫 포착

멸종위기종...기러기목 오리과 조류로 날개끝 검은색 특징

순천시는 3일 “지난 1일 오전 8시30분 순천만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에서 흰기러기(사진) 1마리가 첫 관찰됐다”고 밝혔다.

흰기러기는 기러기목 오리과 조류로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이다. 몸길이는 64~76cm이며, 몸 전체가 흰색이나 날개 끝은 검은색이다. 주로 알래스카, 북동 시베리아에서 번식하고 북아메리카에서 월동하며 국내에서는 기러기 무리에 섞여 소수가 관찰되는 희귀 조류다.

순천만 워킹 탐조 7시 프로그램에 참가한 탐조객이 흑두루미와 큰기러기 사이에서 법씨를 먹고 있는 흰기러기를 처음 발견했다. 탐조객은 12월 첫날, 순천만에서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흰기러기를 처음 발견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맨발로 걷는 람사르 길이 한국의 겨울철새 탐조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며 “소리와 걷기를 결합한 순천만 탐조 여행에서 희귀 철새를 만나는 행운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만 탐조대에서 흑두루미를 비롯한 멸종위기종 겨울철새를 80m 거리에서 근접 탐조가 가능하다. 탐조 프로그램은 7세 이상 회당 15명 선착순으로 순천만습지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다. /순천=정기기자

## 고흥 녹동항 드론쇼, 24만명 방문...“200억 경제효과”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매주 토요일 녹동 바다정원에서 소록대교의 야경을 배경으로 펼쳐진 ‘2024 고흥 녹동항 드론쇼’가 폐막 행사를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고흥군 제공>

### 8개월간 38회...지역 상권 매출 증가·고용 창출 효과

고흥 녹동항 드론쇼가 8개월간 대장정 속 누적 관광객 24만명, 경제효과 200억원 창출을 기록하며 지역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3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매주 토요일 녹동 바다정원에서 아름다운 소록대교의 야경을 배경으로 펼쳐진 ‘2024 고흥 녹동항 드론쇼’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호남권 최초 상설 프로그램 ‘고흥 녹동항 드론쇼’는 멸종위기 동물, 세계여행, 기온운동화 등의 의미를 담은 콘텐츠를 매회 새롭게 선보였으며, 매일 1회 이상 해상 불꽃쇼도 함께 펼쳐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흥군은 8개월 동안 38회에 걸친 드론쇼에 관람객 24만명이 찾아 지역 상

권에 활력을 불어넣었음은 물론, 120여 명의 고용 창출 등 직간접인 경제효과가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녹동전통시장 상인회와 녹동항 주변 일부 상가에서는 드론쇼 덕분에 매출이 증가했다. 또한 폐막식에서 전달된 고흥사랑기부금은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광주에서 온 한 관람객은 “지난해 여름 고흥에서 드론쇼를 처음 접했는데

올해는 콘텐츠와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진 것 같다”며 “함께 열린 버스킹 공연과 불꽃쇼도 즐거웠고 내년에도 오고 싶다”고 말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8개월간 이어진 드론쇼가 지역주민과 유관기관의 참여와 협조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됐다”며 “2025 고흥 녹동항 드론쇼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경쟁력을 확보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최복환 기자

##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챌린지게임 ‘인기몰이’

여행·게임·상품 1석3조 행사...하달간 매주 주말 진행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이 겨울철 특별 이벤트로 챌린지 게임을 선보이며 지역민과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3일 곡성군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주말과 휴일에 챌린지 게임을 운영한다. <사진>

챌린지 게임은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다. 기차마을 중앙광장에서 매주 주말과 휴일 오후 1시와 3시에 각각 1시간씩 진행된다.

총 4가지 게임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각 게임별 우승자에게는 상품이 지급된다.

이벤트는 먼저 몸풀기 게임인 ‘보물

을 찾아라’로 시작된다. 보물이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게임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몸풀기 게임이 끝나면 본격적인 게임으로 ‘흔들흔들 만보기’, ‘협동 케치볼’, ‘막대를 잡아라’가 이어진다.

‘흔들흔들 만보기 게임’은 운목을 이용해 만보기를 흔들며 최고 기록을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동 케치볼’은 참가자들이 고무공을 주고받으며 바구니에 넣어 가장 많이 담는 팀이기는 게임이다. ‘막대를 잡아라’는 이번 이벤트의 메인 게임으로 기계에서 무작위로 떨어지는 막대를 많이 잡아 참



가자들 간의 순발력을 겨루게 된다.

한 기차마을 방문객은 “가족들과 놀기도 좋고, 매일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 섬진강기차마을을 자주 찾고 있다”며 “연말에 진행되는 새로운 이벤트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관계자는 “출다고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들

이도 하고 이벤트도 즐기면서 건강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챌린지 게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공식 인스타그램(gstrainvillage\_official)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곡성=김명필 기자

## 보성군 ‘전남한복문화창작소’ 개소

한복 생산·판매·체험 등 전통문화 활성화 거점

보성군이 한복 문화와 산업의 구심점이 될 ‘전남한복문화창작소’를 개소했다.

3일 보성군에 따르면 ‘전남한복문화창작소’가 복내면 천연염색공예관에 새롭게 조성돼 개소식이 열렸다.

‘전남한복문화창작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

화진흥원이 주관한 ‘2024년 지역 한복 문화창작소’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성됐다.

이 사업은 한복 생산, 전시, 판매, 체험 기능 등을 갖춘 한복 문화 활성화 거점을 마련하고, 한복 문화 확산 및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3년간 10억원을 투입한다.

천연염색 ‘숨’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한복 전시장 ▲실습교육실 ▲아카이브실 ▲미디어 영상실 ▲한옥복합문화공간 등이 구성돼 한복 디자인 개발과 한복 교육 등을 선도하는 한복 대중화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소식은 박우욱 전남도 문화융성국장, 서형민 보성군 부군수, 이동현 전남도의회 도의원, 김재철 도의원, 김경열 보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관계자와 지역 한복인들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전남한복문화창작소 영

상, 기념사·축사, 테이프 커팅 퍼포먼스, 한복 패션쇼 순으로 진행됐다.

보성군은 전남한복문화창작소에서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과 한복 문화 사업 등을 추진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한복의 매력을 알리는 데 힘쓸 계획이다.

서형민 부군수는 “전남한복문화창작소가 한복 문화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한복의 전통문화를 지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